

‘거북이 행정’에...광주 민간공원 아파트 분양가 인상 불가피

1년 넘게 지연...보상비·원자재값 상승에 사업비 ‘껍충’ 일부 사업 포기 우려 평당 1000만~1500만원대 주변보다 저렴...검증 후 시-업체간 분양가 조율

원자재값 상승, 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에 들어서는 아파트 분양가의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선 7기때 광주시 도시계획 부서의 더딘 행정행위와 시민사회단체 출신 일부 도시계획위원의 명분 없는 트집 등 각종 악재가 겹치면서, 사업 자체가 1년 넘게 지연된 것이 사업비 상승의 주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전남대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하는 신용공원 특례사업 타당성 검증 용역이

다음 달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총사업비 검증 과정에서 광주시와 건설사는 그 결과를 토대로 적정 분양가를 다시 산출하게 된다. 애초 이곳 평당 분양가는 1020만원으로 잠정 합의됐지만 93억원으로 예상된 토지 보상비가 170억원으로 뒀다가 최근 자재값 폭등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총사업비도 늘어나게 됐다. 현재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 중인 광주 9개 공원, 10개 지구 모두 사정이 비슷해 분양가 인상을 요구하는 사업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단 후분양을 추진중인 중앙공원 1지구는 다소 시간적 여유가 있다해도, 나머지 9개 지구는 순차적으로 분양가를 다시 협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평당 분양가는 중앙공원 1지구를 제외하면 1000만~1500만원 범위로 일반 신축 아파트는 물론 기존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도 저렴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업체들 사이에는 20~30%, 많게는 50%까지 분양가를 올려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 사업자는 “광주에서 업체 길들이기를 하려는 것인지 별다른 이유도 없이 용도지역 변경 등 각종 행정업무를 차일피일 미루는 사이 땅값은 물론 자재값, 인건비, 금리 등 모든 게 폭등했다. 지금도 일부 사업장은 용도지역 변경조차 되지 않고 있다”면서 “특정 사업지구는 시민사회단체 출신의 일부 도시계획위원이 생떼수준의 논리를 내세워 사업 진행을 가로막는 바람에 사업 포기를 고민할 정도로 힘든 시기를 겪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도 사업 추진 초기와 비교해 물가상승 등 사업 환경이 많이 바뀐 부분 등이 있는 만큼 일부 인상 요인을 인정하고 있는 상태다. 광주시와 사업자들은 사업 협약 당시 내용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업자의 신청을 거쳐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광주시는 다만 시민 정서와 지역 내 아파트값 상승 등을 우려해 인상 폭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사업이 여러 이유로 애초 계획보다 늦어지면서 불가피하게 사업비가 늘어난 부분이 있고, 일부 사업장은 현 분양가로도 사업 자체를 할 수 없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면서 “타당성 검증뿐 아니라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와 회계사 등 전문가로 꾸려진 검증단을 통해 적정 분양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대상 부지를 건설사가 모두 매입한 뒤 공원을 조성해 광주시로 넘기고 비 공공 시설인 아파트 등을 지어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중복 식당 풍경 중복인 26일, 광주시 서구의 한 삼계탕 전문점에 복달임을 하려는 손님들로 인해 음식점이 북적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남도장터’ 더 편리해졌네

간편 주문 등 접근·편의성 높여...최대 40% 할인 등 다양한 판촉

전남도는 지난해 역대 최고 매출액 552억원을 달성한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jmall.kr)의 누리집을 소비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디자인 등으로 전면 개편해 26일 새롭게 개장했다. 남도장터는 농어민과 소상공인의 안정적 판로확보를 통한 소득증대를 위해 전남도가 구축, 지난 2004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번 개편은 코로나19, 선불식 충전 결제방식 확산 영향에 따른 온라인 쇼핑물 수요 급증 등 시장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최신 흐름에 맞춰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편의성을 갖춘 쇼핑물로 새 단장 했다. 누리집은 소비자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보다 직관적으로 바꿨다. 소비자가 원하는 물건을 쉽게 찾아 구매하도록 사용자 중심 디자인을 적용했고, 간편 주문과 제로페이, 온누리상품권 등 결제 시스템을

적용했다. 향후 도내 시군 지역화폐로 결제하도록 보장할 계획이다. 새 단장을 기념해 오는 8월 7일까지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남도장터 전 품목 최대 40% 할인, 20% 할인 혜택 ‘농활쿠폰’ 지급, 전북 온라인 30% 할인을 비롯해 보양식 기획전 등이 펼쳐진다. 다가오는 민족 대명절 추석을 대비해 더욱 다양한 혜택을 준비하고 있다. 강화촌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전남의 고품질 농수축산물을 남도장터에서 온라인 직거래로 편리하고 합리적 가격으로 구매하도록 힘쓰고 있다”며 “남도장터는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 흐름에 맞춰 농어가와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를 확대해 매출을 극대화하고, 소비자에게 가치소비에 대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 수산가공품 생산액 2년 연속 전국 1위

2021년 1조6773억 전년보다 11% 증가...생산량 29만8000t

전남도가 2021년 수산가공품 생산액이 전년보다 11%(1637억원) 늘어난 1조6773억원을 달성, 2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생산량도 전년보다 1000t 증가한 29만8000t을 기록했다. 전남지역 수산가공품 업체가 1646개소로 전년보다 10개소가 늘고, 업체당 평균 생산액 역시 10억1900만원으로, 10억원대를 넘어서는 등 지역 내 수산물 가공 여건이 나아진 덕분이다. 해조류 간제품 제조는 지난해보다 6% 감소한 반면 냉동식품 제조는 7% 증가했다. 종사자 수는 7117

명으로 코로나19 등으로 541명이 감소했다. 전남지역 수산가공품 생산액은 지난 3년간 연평균 14%씩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김,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와 조기 등의 작황이 부진했으나, 이 때문에 산지가격이 오른데다, 대형 소매점의 할인행사 등으로 수요가 늘면서 생산액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 가운데 전남도는 수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수산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 제2차 수산가공·유통산업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026년까지 가공·유통 분야별 6대 중점 추진전략과 93개 사업을 발굴해 총 8404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최정기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전남은 전통적으로 국내 최대 수산물 생산지임에도 불구하고 가공 실적은 이에 미치지 못했으나 최근 김 가공 및 수출 증가 등에 힘입어 가공품 생산액도 전국 점유율 1위를 달성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 등 수산가공산업을 지속해서 육성, 2026년까지 생산액 2조5000억원을 달성, 수산식품산업이 전남의 경제를 선도하는 중추산업으로 우뚝 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전남도 ‘재난·사고 안전공제보험’ 안내 강화

전남도가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피해를 본 도민의 조기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도민안전공제보험’ 제도의 보상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안내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민안전공제보험 수혜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경찰청, 소방서, 병·의원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매월 시·군 사고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남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해 개인정보 동의를 얻어 피해자와 그 가족을 직접 연결해 안내하는 시스템을 마련 중이다. 도민안전공제보험은 전남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이면 누구나 별도 가입 절차와 부담금 없이 자동 가입된다. 전국 어디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보장 항목에 대해 최고 2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의사사고 사망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사망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애 ▲강도 상해 사망후유장애 ▲농기계 상해 사망후유장애 ▲스쿨존 내 교통사고 등 11개다. 전남도는 도민의 보장 수혜를 늘리기 위해 개 물림 사고, 감염병 치료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고에 대한 보장항목 추가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심우정 전남도 안전정책과장은 “지난 2020년부터 시행된 도민안전공제보험을 통해 지금까지 도민 541명에게 약 30억원의 보험금을 지급, 보험이 사회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며 “보험금 미청구 사례가 없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적극 홍보하고, 새로운 보장항목을 추가 검토하는 등 혜택 확대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협

튼튼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광주문화신협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대표번호 1644-7990

본점(본부, 사업본부), 문흥지점, 양산지점, 운암지점, 동림지점, 매곡지점, 천대지점, 통광지점, 각학지점

자산규모
1조3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8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